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08)(12/30/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12 장 인내를 배워서 악한 정욕들에 맞서 싸움, 1-3 절

히 10:36 -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욘 7:1 -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약 1:2 -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 <제자> 주 하나님이며, 내게는 많은 인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압니다(히 10:36).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역경들을 만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궁리를 하더라도, 나의 삶 속에서 분쟁과 괴로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욘 7:1).

2. <그리스도> 아들이,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내가 네게 바라는 것은 네가 그 어떤 시험이나 역경도 겪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약 1:2) 연단을 받아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3. 네가 지금 그러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장차 네가 겪어야 할 불 같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가지 괴로운 일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덜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장차 있을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하여 현재의 괴로움들을 인내로써 참고 견디려고 애써라.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괴로운 일들을 아예 또는 거의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온갖 즐거움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조차도 많은 괴로움들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반문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많은 즐거움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겪는 환난들을 별 것 아닌 일들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여도, 그런 삶이 얼마 동안이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씀과 해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성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바로 인내이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 있고, 그러한 상황을 겪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인내로 승리할 것을 권고했다. **약 1:2-4 -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인내를 통하여 성숙하고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내가 요구되는 환난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는 인내로써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으며 아울러 그 과정을 통하여 전에 없던 더 깊어진 인내의 덕목을 갖추어 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빠져나왔을 때에는 여러 면에서 성숙한 영성과 인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최고의 인내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히 12:2-3 -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살후 3:5 -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했다. 히 10:36 -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딤후 6:11-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당연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히 12:1 -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인내가 필요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인내이다.

아울러 인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벰전 3:8-9, 17 -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며 선을 행할 것을 권면했는데, 그 모든 것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룩한 인내임을 알게 된다. 그렇다. 우리는 인내로 고난을 이기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인내로써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인내가 무너지면 믿음도 영성도 삶도 무너질 수 있다. 환난, 시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와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며, 힘든 고난과 삶의 어려움도 극복하며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2.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비드 변이 바이러스를 통제하여 주시고, 팬데믹 상황이 조속히 종식되며 온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3. 북한, 중국, 이슬람 국가 등에 존재하는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영적인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